

신장 결핵이 합병된 임신부 1예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과학교실

이민지 · 신성준 · 김경수

A Case of Active Renal Tuberculosis Complicated in Pregnant Woman

Min Ji Lee, Sung Joon Shin, Kyung Soo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생식 비뇨기계 결핵은 전체 폐외결핵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일차감염 후 혈류를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생식비뇨기계의 어느 부위나 침범할 수 있다. 감염시 빈뇨, 배뇨곤란, 혈뇨, 측복부 통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발현된다.

임신 18주의 27세 산모가 반복되는 요로감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5개월 전에 첫 요로 감염 소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증상을 동반한 요로감염은 치료 후에도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소변 배양 검사상 특별한 균은 자라지 않았으나, 농뇨 소견은 지속되었다. 반복되는 요로감염 및 지속적인 농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환자가 임신 중임을 감안하여 신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초음파 검사에서 신결핵을 시사하는 우측 신배의 불규칙한 확장과 석회화, 신우벽의 비후 및 위축소견이 관찰되었다. 아침 첫 소변을 이용하여 3일간 시행한 항산성 염색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에 우측 신장 하극의 확장된 신배에 고름성상의 액체에 대해 초음파 유도하에 미세침 흡인술을 시행하여 검사한 결과 항산성 염색에서 1+로 나타났다. 일차폐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방사선 소견에서는 결핵감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문진상 결핵환자와의 접촉력은 없었다. 이에 신장 결핵이 확진되어 Isoniazid, Rifampin, Myambutol, Pyrazinamide를 포함한 4제 요법으로 결핵치료를 시작하여 17주째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료 중으로 현재는 Isoniazid, Rifampin만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임신 35주로 태아 및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로 추적 중이며 자연분만 예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임신 중 신장 결핵이 확진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Key Words : 신장결핵, 미세침 흡인술, 임신

Renal tuberculosis, Fine needle aspiration, Pregnancy